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루가 제7주일

성 네스토르 순교자

제2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고린토 후 11,31-12,9 / 봉독서 279

· 복음경: 루가 8,41-56 / 127. B 7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사람들의 삶에서 돈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밝혀내려고 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현실로 남게 되는 것은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돈을 신격화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에 대한 애착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삶에서 가장 큰 나쁜 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내면에서 ‘모든 악의 뿌

리’(I 디모테오 6:10)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삶에서 하나의 ‘사용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용 수단에서 목적이 되면,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선치료자’라는 호칭을 교회에서 부여받은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를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1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병든 자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총대주교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협력하길 요청합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기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구테헤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 모두가 포부를 높여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향한 전진을 촉발시키고, 또한 유엔 기후 변화 회의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세계총대주교는 이미 30년 전 창조세계의 한 부분인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민감하게 한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기후 변화를 야기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생존 가능한 성장모델을 향해, 세계의 경제 선진국들이 사회적 공평성과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의 효과적인 이행을 중단 없이 실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투자의 성공적 결과만 좇을 것이 아니라, 투자에 상응하는 환경적 의무를 자각하고 비영리 기부 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을 간과해선 안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메시지는 올해가 매년 9월 1일을 창조세계의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계총대주교청의 첫 번째 환경보호 회칙 공포 30주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올해는 세계총대주교청의 첫 번째 환경보호 회칙이 선포된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부터 가톨릭 교회, 성공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9월 1일을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해 기도하는 하는 날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회칙을 통해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전 세계 공동체에 간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대학, 기업, 시민 사회, 신자들 그리고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자연환경이 처하게 된 전례 없는 위협으로부터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구하기 위해 결정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서 더욱 큰 용기와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인류는 이 과제를 국가적, 종교적, 당파적 이익, 경제적 이익, 개인적 이익보다 더욱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핀으로 고정된 날개로 돌아오는 비둘기들



나는 먼 길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훈련된 비둘기 한 무리를 40킬로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조류학자에게 팔았던 어떤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비둘기들이 새로운 새장에 잘 적응해 지내도록 하기 위해 조류학자는 비둘기의 날개를 옷핀으로 고정시켰으며, 이로써 비둘기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거나 날아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두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원래 비둘기를 길렀던 주인은 우연히 자기 집 창문 밖을 내다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터덜터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비둘기들이 있었다. 비둘기들은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새장 속의 똥로 되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날개가 옷핀으로 고정되어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자 새들은 40킬로나 되는 먼 길을 피가 나서 아픈 발로 걸어, 자기들의 본능이 진정한 집이라고 말해 주는 그 장소로 되돌아온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따분하고, 공허하다면, 또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은 마치 응급 상황에서나 필요한 구급약처럼 선반 위에 저만 큼 거리를 둔 채 홀로 계시다면, 그리고 왜 내 인생에는 그토록 바라는 행복 같은 것은 없는지 의아해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가 있는 집으로 오라. 너를 향한 나의 영원하고 그치지 않는 사랑이 있는 집으로 오라. 네 마음 속 가장 깊은 바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힘을 지닌 나의 집으로 오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인회 가을 나들이

지난 10월 15일(화) 부인회 회원들은 인천 소래포구와 영종도로 가을 나들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녀왔습니다. 참석하신 일행 모두 신선한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푸른 바다가 있는 해변을 걸으며 서로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인회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셔서 계속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부인회 모임이 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먼 나라, 이웃 나라' 가을 음식 축제 결산

지난 10월 20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 앞 마당에서 '먼 나라, 이웃 나라' 가을 음식 축제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 마쳤습니다. 한국 사람을 비롯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그리스, 미국과 이집트의 정교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이웃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민족의 구별 없이 모든 정교인들이 하나가 된 모습은, 특별히 정교인이 아닌 한국 사람들에게 정교회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음식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협조해준 신데즈모스 청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성모희보 성당

■ 정기 바자회

11월 3일(일)에 정기 바자회가 열립니다. 수익금은 자치구에서 행사하는 어려운 이웃 돕기에 협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주셔서 뜻깊은 행사를 보낼 수 있도록 교인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가을 야유회

지난 10월 20일 주일 성찬예배 후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방어진 체육공원으로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날씨와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풍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간예식

• 11월 1일(금) 성 코즈마스,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와 어머니 성 테오도티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